“낙하산을 이겨라” 27일 담양군 11공수특전여단에서 실시된 2010 동계 특전캠프 참가자들이 협동심과 체력을 다지기 위해 낙하산을 메고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은행마다 기준 달라 논란

광주서 200만원 메신저 사기 사건
검·경 압수수색 영장…은행측 거부
다른 은행들서는 되돌려준 사례도

은행별로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달라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이 이른바 ‘메신저 사기’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범죄관련 계좌에서 피해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부 은행은 관련 법규를 근거로 응하지 않아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 구제 방법을 놓고 은행과 검·경의 치열한 법리 다툼도 예상된다.

◇**사건 개요**=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에 사는 정모(여·31)씨는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는 친구의 메시지를 받고, 2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송금 직후 통장명의가 친구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정씨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범죄관련 계좌가 개설된 A은행 광주지점을 관할하는 광주동부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자 정씨가 송금한 200만원은 사기 등 전과 20범인 김모씨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메신저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이 김씨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해킹을 통해 정씨의 친구인 양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청에서 내린 ‘금융사기 피해금 압수 및 가환부 추진지시’에 따라, 김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을 피해자 정씨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A은행 광주지점은 “예금은 압수할 수 있는 법률적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경 “이해할 수 없다” 반발**=검·경은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적법한 법집행을 은행 측이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압수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은행 측이 집행을 막아설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쉽게 피해를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려는 은행 측의 대응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특히 법원의 영장을 제시하고 금융사기 피해 구제를 금융기관이 거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의 ‘금융사기 피해금 압수, 가환부 지시’ 뒤 경기도 일산경찰은 B은행을 상대로 예금(590만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경남 창원 중부경찰은 C은행을 상대로 피해자의 예금(494만원)을 되돌려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부당이익 반환 소송은 법원 영장을 통해 압수하는 것보다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절차가 복잡해 범죄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시간과 비용이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은행 “법적 근거없다”**=A은행 광주지점은 “본점 법무팀을 통해 법리검토를 한 결과, (판사의 영장이 있어도) 돈을 내줘야할 근거는 없다”며 “경찰이 주장하는 선례는 있을 지 몰라도 이와 관련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김씨의 통장에 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 대신,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부당이익반환 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은행 측은 최근 20대 남성 3~4명이 은행에 들러 문제가 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돈을 가로챈 용의자를 뒤쫓는 한편 인터넷 채팅 중 친구로 가장해 송금을 요구할 경우 통장명의를 확인하고, 전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서류조작 대출금 챙긴 골프장 시행업자 징역형

광주지법, 임원 2명도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27일 골프장 조성 관련 서류를 조작해 거액을 대출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골프장 시행업체 운영자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출서류 조작에 개입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 공모(47)씨와 하모(55)씨 등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화순군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던 중 2007년 2월께 토지매입대금 등을 부풀려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은 뒤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2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벽지구간 버스 교통량 조작
보조금 2,700만원 부당지급

함평군 공무원 등 4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7일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을 조작해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함평군청 소속 공무원 이모(37·7급)씨 등 3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짜고 교통량을 조작한 H여객 대표 한모(65)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함평군 내 벽지 구간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교통량을 조작해 만든 조사표를 근거로 보조금 2천700만원을 H여객에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 노선에는 승객이 1명도 탑승하지 않은 것처럼 조사표를 위조해 비 수익노선으로 만들어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한씨는 군청으로부터 교통량조사 통보를 받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승객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실어 나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과적 단속 정보 흘려주고 뒷돈
공무원 등 무더기 징역·벌금형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27일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주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국도관리사무소 전 도로관리원 서모(35)씨와 오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45)씨 등 전직 도로관리원 5명과 화물차주 이모(33)씨 등 16명에 대해 징역 3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화물차주와 운전자 81명은 벌금 5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수수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화물차주들도 뇌물을 줘가며 단속을 피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씨 등 도로관리원 7명은 2006년 10월부터 3년간 과적단속을 무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물차주 등에게 1천200만~6천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객선 추락 어린이 숨져

27일 낮 12시50분께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加沙島) 4.5㎞ 해상에서 윤모(10)군이 숨진 채 바다에 떠 있는 것을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작업 중이던 목포해양경찰이 발견, 시신을 인양했다. 윤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어머니 박모(32)씨와 함께 목포항에서 150t급 여객선 S호를 타고 집에 가던 중이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초과근무 소송 방해”
전남 소방간부 5명 고발

장재완 소방발전협의회장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명은 27일 “소송 진행을 방해한다”며 전남도 소방본부장과 영암, 보성, 담양, 광양소방서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간부들이 소송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모두 79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광주지법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각각 임금 지급 소송을 냈지만, 상급자의 회유 등으로 일부 소방서에서는 50~70%가 소송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삼성전자 부사장
자택서 투신자살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이모(51)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의 집에서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1992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씨는 그동안 반도체 D램과 플래시메모리 분야에서 주로 일해왔으며, 2006년 삼성의 핵심 기술 인력인 삼성펠로우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이씨가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가방 훔쳤다 카드결제 때문 ‘덜미’

쌍나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의 손가방을 몰래 훔친 절도범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덜미.

○…광주북부경찰은 27일 김모(29·북구 용봉동)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S식당에서 손님 최모(여·25)씨의 현금 5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쳤다는 것.

○…김씨는 신용카드로 밥값을 내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범행이 들통났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횡설수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